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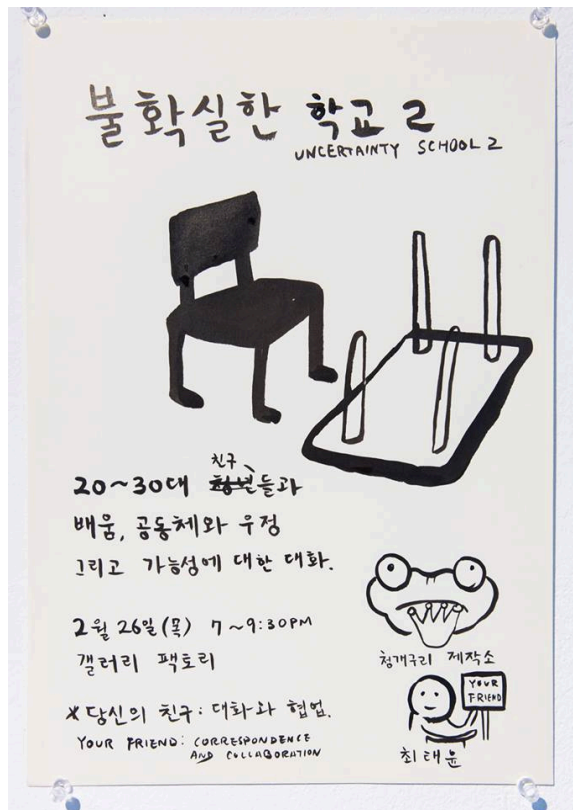
불확실한 학교 1

2.15.2015



불확실한 학교 2

2.26.2015



[청개구리 제작소](#) + [최태윤](#)

[당신의 친구: 대화와 협업](#)

갤러리 팩토리

불확실한 학교 2 진행: 청개구리 제작소, 최태윤,

[김승범](#), 심재경+김화용([가옥](#))

문의/contact taeyoon@sfpc.io

Fabcoop + Taeyoon Choi

Your friend: correspondence and collaboration

Gallery Factory, Seoul

불확실한 학교 2 진행 노트.

최태윤

불확실한 학교는 <당신의 친구: 대화와 협업> 전시 이전부터 많은 대화를 해온 갤러리 팩토리의 홍보라 디렉터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해온 청개구리 제작소와 화상 통화를 하며 무엇인가 불확실한 것을 해보자!하고 정하고 불확실하게 진행되었다. 1회 [진행 노트](#)

2월 15일 불확실한 학교를 17~19세 친구들과 진행하고 청개구리 제작소와 나뿐만 아니라 갤러리 팩토리 스텝들과 참관했던 지인들 모두 “한 번 더!”를 외쳤다. 참가한 친구들이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빛나는 모습을 보는게 즐거웠다. 2월 21일 토요일 최빛나씨가 ‘그럼 다음주에 한번 더 할까요?’ 제안하셔서 20~30대를 대상으로 2월 26일에 진행 하기로 정하고 바로 페이스북에 공지를 올렸다. 거의 24시간 만에 20명 넘게 참가 신청해서 마감되어 이 주제에 대한 공통의 관심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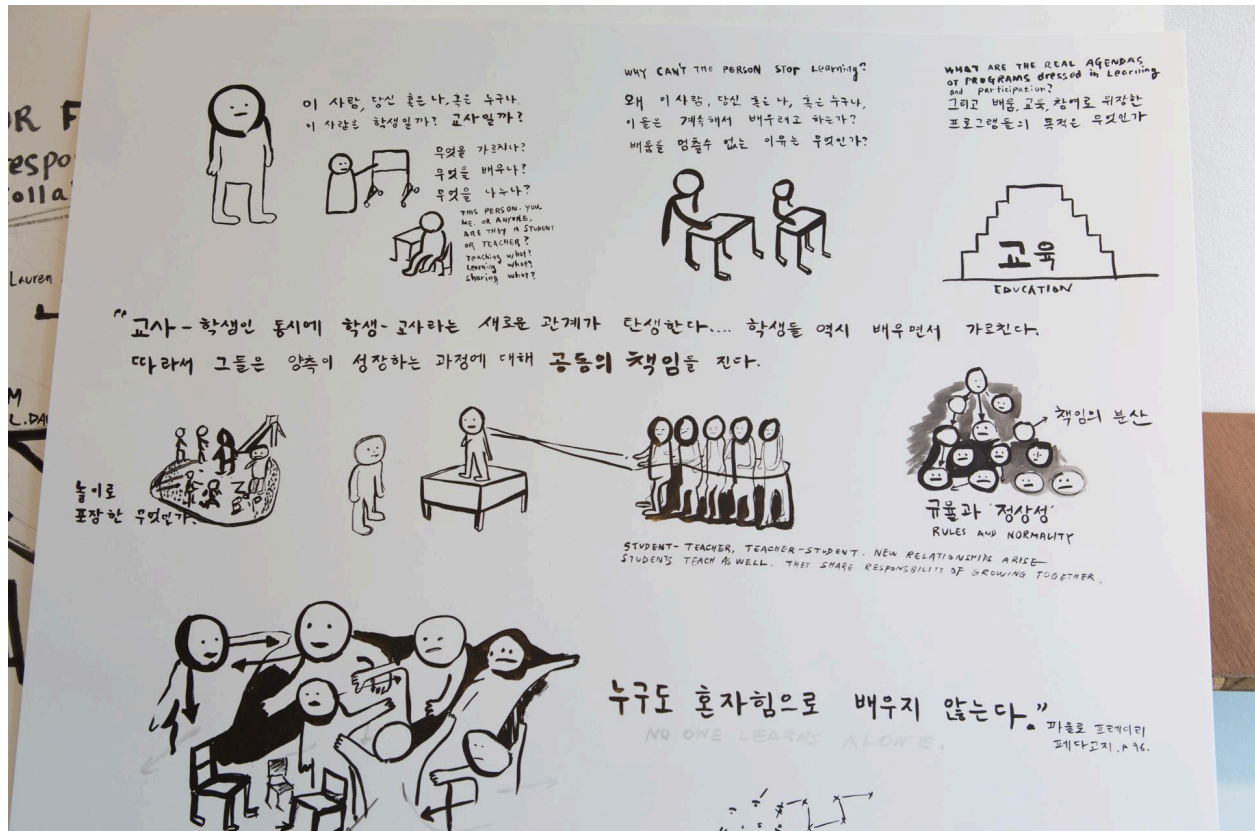
Notes from Uncertainty School 2

Taeyoon Choi

Uncertainty school began from a letter I sent to Bora Hong, the director of Gallery Factory. We have been having long conversations before the exhibition <Your friend: correspondence and collaboration> which I curated at the gallery. And I went on a conference call with Fabcoop, a collective I've worked with on various projects in past five years. We decided to do something uncertain and stayed in the uncertainty. Notes from the first event (only in Korean now) [진행 노트](#)

Fabcoop and I organized Uncertainty School for youth in the age between 17~19 in 2.15.2015. All of the organizers, Gallery Factory staffs and adults who came to observe the event were screaming “one more time!” The participating youth were telling such an amazing story about the way they learn, the schools, and their hopes for friendship. They were shining and we enjoyed watching them become themselves. On 2.21 Bittna called me and asked “Shall we do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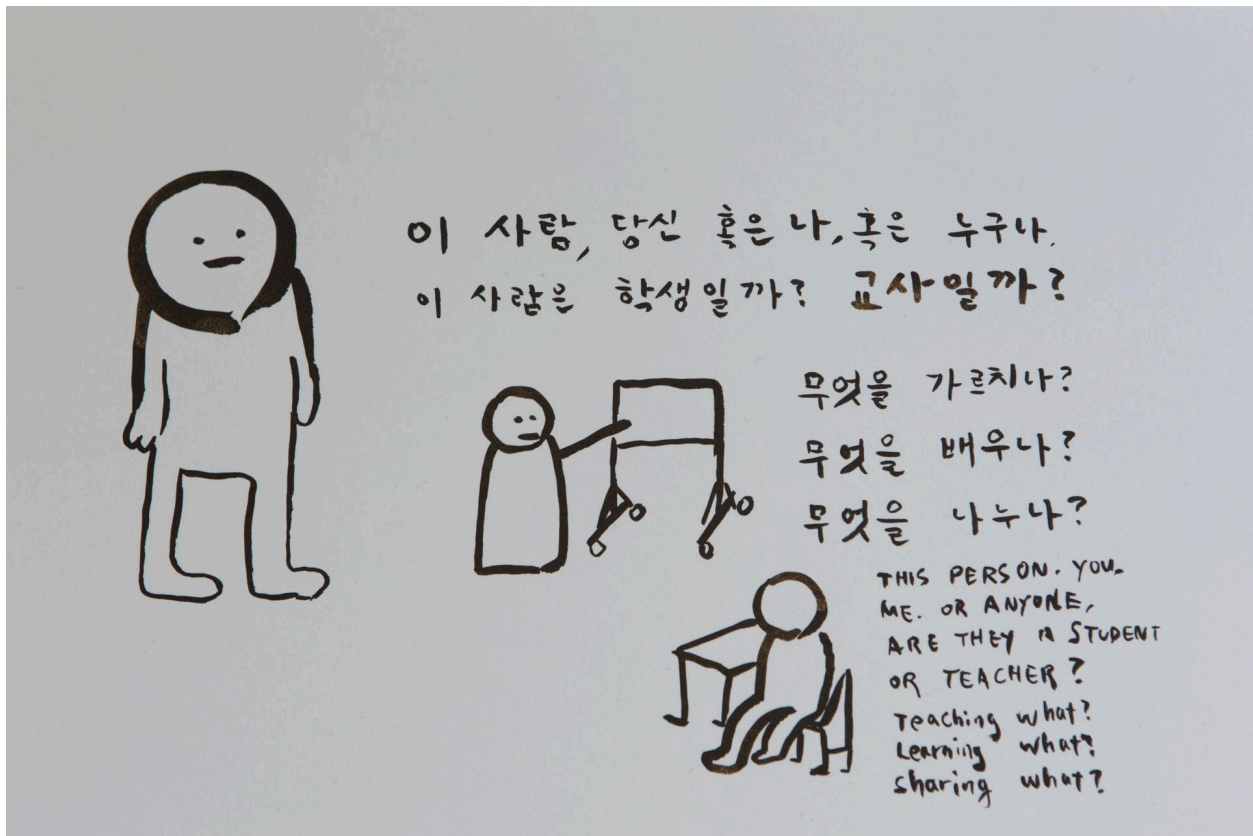
one more time?" and we decided on the spot to do another session for people in 20~30s in 2.26. Within 24 hours of putting the announcement on the Facebook and Twitter through our network and the gallery's online channel, 20 spots filled up and we were sure of the shared interest for the topic.



학교 만들기, 배움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은 것이 편하게 느껴지지만은 않아 조심스러웠다. 어떤 이유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는가? 배움의 영속이 사회와 긍정적인 관계 맺기이기 이전에 '자기 계발'같은 아젠다로 신자유주의 사회의 생존 전략으로 이해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의아하게 여긴 것은 비단 순식간에 마감된 워크숍 때문만은 아니다. 같은 시기에 몇 기관에서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제안하던 사업들이 우리 활동의 핵심을 오해해서 다른 아젠다에 사용될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왜 공교육과 대학까지 나온 (더는 갈 학교가 없는) 사람들이 더욱 학교 혹은 학교의 대안을 찾아서 가는가? 사교육 - 조기유학- 유학-취업 준비의 사이클 이후에 교육 시장의 새로운 소비자 만들기가 아닌가? 대안을 흡수하려는 의도인가? 대학과 대학원에서 강의하는 사람들까지도 교육 상품 시스템에 소비자로 취급하는, 배움과 공동체의 상품화가 남기는 것은 무엇인가? 이는 사유할 기회 없이 재생산되는 시스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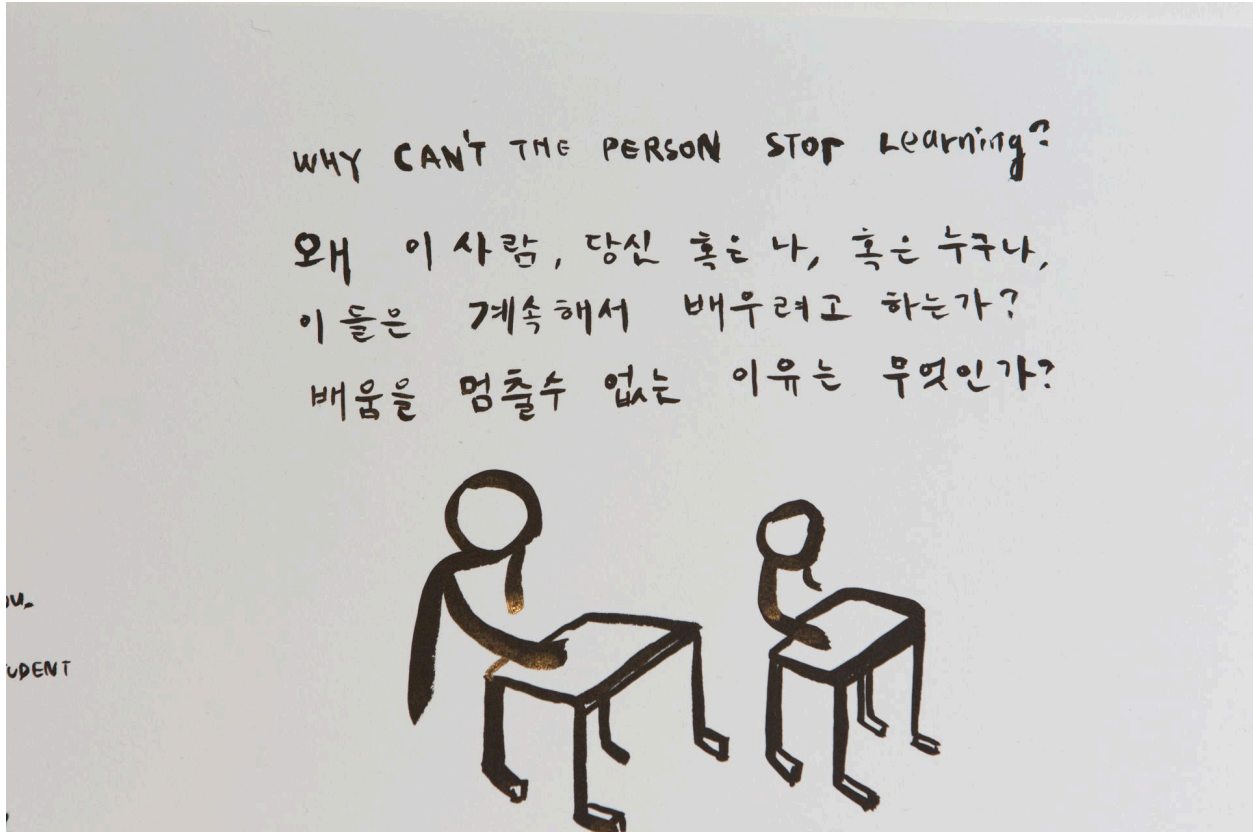
대한 불신이자 학생, 교사, 기획자로서, 이렇게 변화하는 시스템에 참여해 스스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질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It was not all that comfortable that there were such a great interest in our discussion about “how to make a school” and conversation about learning. We were cautious about how to approach this topic. How come we continue to try to learn? Is learning part of our need to continuously improve ourself (like self help book- the doctrine of survival in the Neoliberal society) These concerns were not solely caused by the great interest of the workshop. Rather, it was due to few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hat reached out to us separately about doing similar events, with slightly misaligned with our goal. Specifically, why do people who finished the grade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and grad schools (those who have no more schools to go to) want to come back to the school, or the alternative schools? All the circles of learning industry : Private tutors (very common in S.Korea) - early teens study abroad - study abroad - schools for preparation for job interview, expanding to the new market of blue ocean? Is it an attempt of the larger institution to subsume the alternatives? What happens after commercialization of learning, treating people who teach at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as consumer of the system? These are all hard questions for ourselves, as an individual participating in the mutating system (which reproduces without a chance to contemplate on its significance, thus we are suspicious of it) without an opportunity to contemplate on our participation.



이런 의문은 청개구리 제작소 직원들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불편해하고 내가 무엇 무엇의 ‘혁신’이라는 표현에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것의 맥락에 있다. 청년이라는 단어는 특정한 연령대의 불특정 다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덜 성숙한 어른, 즉 (멘토링 같은) 도움이 필요하고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약자라는 뉘앙스가 불편한 것일듯하다. 혁신(innovation)이란 표현은 성장(growth), 발전(progress) 혹은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등의 단어와 흡사하게 기존 시스템과의 종속 관계를 드러낸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벤처 캐피탈의 세계에서 사용되는 표현이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더욱더 쉽게 가능하기 어려운(elusive) 시장 중심의 패러다임을 보인다. 즉 혁신이란 변화의 상품화이고 이는 데이터 혹은 화폐 가치 등 계량할 수 있는 기준에서의 차이 만들기이다. 10대를 대상으로 한 불확실한 학교1에서는 이런 생각을 표면 위로 꺼내지 못했지만, 참가자들이 니즈(needs), 경쟁, 상품 등의 표현을 거침없이 하는 것을 보며, 어쩌면 우리보다 그들은 훨씬 더 이런 이슈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했고 그들의 시선과 우선순위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불확실한 학교에서는 이런 생각이 대화 아닌 대립을 만들 수 있다는 의심을 잠시 접어두고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배움의 생태계를 유심히 들여다보고자 했다.

These questions are in the context of the way Fabcoop is not comfortable with expressions like 'youth'(청년 Chung-nyun) and how I'm not comfortable with expressions such as 'innovation'. Youth, in Korean society lately, means they are a group of people in specific age range who is not yet mature, thus in need of social support (such as the common idea of 'mentoring) and in a disadvantageous place. Innovation, like its counterpart like growth, progress and disruptive innovation, shadows its consequent dependencies on the incumbent system. The way in which the word is used in the startups or the venture capitalist world has made it part of the everyday life, and show the nature of elusive capitalism. Therefore, innovation is the commodified form of transformation (change in any nature) and something that can be quantified, making visible change in data or currency. I couldn't really make these concerns visible on the first Uncertainty School because it was geared toward the youths, but they were casually using words like '(corporate) needs', competition and product. Maybe they were somewhat closer to the issues I'm concerned, experiencing it on daily basis. From their conversation, I learned about their priorities in learning. We hoped that in Uncertainty School, we wanted to look at the ecology of learning and teaching, without doubting these kinds of conversation can lead to confrontation and not conversation.



Unlearning

불확실한 학교는 배워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가르쳐야 한다는 책임감을 버린 학교이다. 확고한 페다고지(pedagogy)가 아닌 색다른 대화법을 실험할수있는 기회이다. 우리가 사는 확실성의 세계 (신용, accreditation, market speculation)에서 대안적인 프로젝트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불확실성이다. 그런 불확실성은 언러닝(unlearning)을 통해서 가능성이 된다. 언러닝의 사전적 의미는 학습 해소, 배운 것을 고의적으로 잊기, 기성 학습 지식의 해체 등을 뜻하지만 여기서 언러닝은 배움의 반대가 아닌 기존의 배움의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이는 [크리스틴 선 킴](#)이 종종 하는 표현 중에 ‘소리의 에티켓을 배우지 않기’ (Unlearning the sound etiquette)에서 따왔다. 태어났을 때부터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크리스틴은 사운드 퍼포먼스, 설치 작업을 통해서 자신같이 약간 다른 사람들을 약자로 대하고, 일반적인 에티켓을 따르도록 하는 전반적인 사회의 억압에 대해 도전한다. 청각 장애인은 자신이 내는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소리를 낸다거나 그 크기에 대해 둔감하다. 청각 장애인의 부모와 주변인들은 그들이 소리를 내지 않도록 규율 함으로써 일반의 에티켓을 따르도록 한다. 그것은 개인성과

‘다름’에 대한 부정이다. **Unlearning**은 일반적인 페다고지와 관습의 순응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이며 실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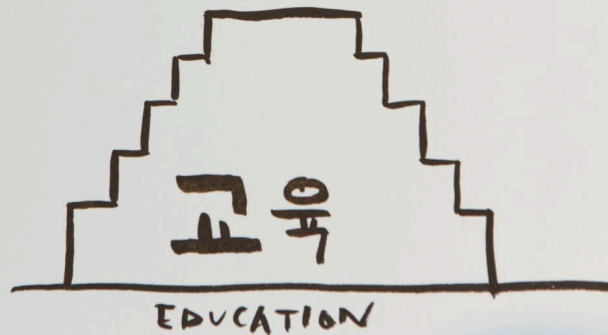
Uncertainty school is a school that is free of an obsessive desire to learn or responsibility to teach. This is an opportunity to try different kinds of conversation other than a rigid pedagogy. In the society of certainty (credits, accreditation, market speculation), where we live and breathe in, the uncertainty is the most potent tool for the alternative projects. The uncertainties become possibilities through unlearning. Unlearning means decompressing learning, willfully forgetting what one has learned, or deconstructing conventionally learned knowledge. However, here I took unlearning from [Christine Sun Kim](#)'s phrase of 'Unlearning the sound etiquette'. Christine did not have hearing ability since birth, and she works with sound performance and installation. Her work is a challenge to the oppression of the society that treats anyone who's different as minority, and enforcing the common etiquette as the rigid norm. Deaf people often produce loud and uncommon sound because they are less sensitive to the noise. Parents and teachers of the deaf people often train them to produce no sound, thus silence, as a way to follow the social norm. That is an active negation of individuality and difference. Unlearning is an active challenge to the typical pedagogy and practice against the conformity to the customs.

Learning?

누구나,
하는가?
무엇인가?

WHAT ARE THE REAL AGENDAS
OF PROGRAMS dressed in Learning
and participation?

그리고 배움, 교육, 참여로 위장한
프로그램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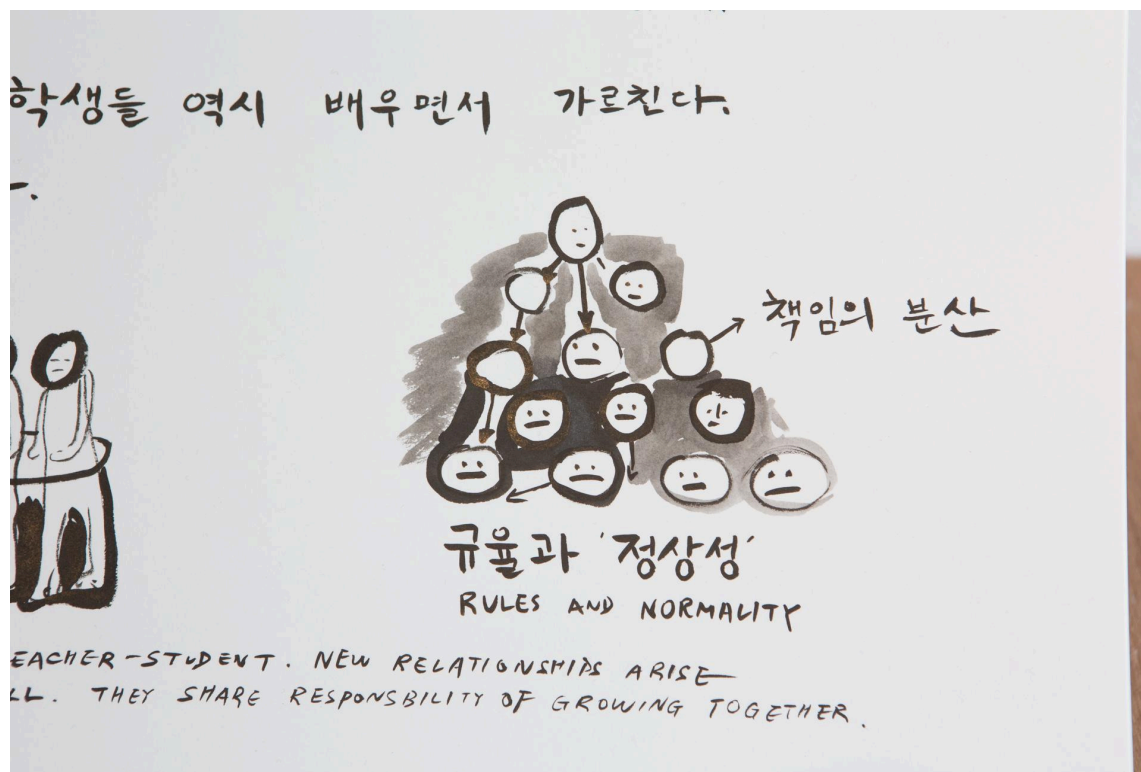
학교, 교도소 그리고 회사

이런 공간과 프로그램을 지배하는 것은 15~16세기부터 이어져 온 관리의 기술이다. 많은 사람과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성립해야 했다. 그 결과는 관리의 일상화와 개인들의 내면화이다. 즉 우리는 관리 당하는 것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관리함으로써 세상과 관계를 맺는다. 미국인 설치 작가 마이크 캘리의 작품 [에듀케이션얼 콤플렉스](#)(Educational complex)는 한 개인의 기억에 남겨진 공간- 프로그램을 구체화 한다. 자신이 다닌 모든 학교 공간의 기억을 되살려서 모형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캘리가 질문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 과정에 틀이 되는 시스템의 의미이다.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공간들은 자신이 괴롭힘을 당해서 무의식적으로 기억에서 지워버린 장소들이라고 한다.

School, prison and workplace(company)

The spaces and programs are governed by the technique of management that continues to this day since the 15th and 16th century invention. In order to manage large number of people and

resource, there needed to be a structural process. The outcome of such process is the penetration of management techniques in everyday life and internalization of the individuals. American installation artist Mike Kelley made the spatial programs that were imprinted in his memory through [Educational Complex](#) project. He made a scaled model of every schools he attended from memory, and through the process he asks about the meaning of the oppressive system in one's personal growth. He claims the spaces that he can't remember, thus are not made into the model, are places where he was abused and erased unconsciously from his memory.



미셸 푸코가 지적한 감시와 처벌의 프로그램은 교육의 공간에서도 이어진다. 학생과 죄수는 유니폼을 입는다. 월가 금융계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한 하늘색 넥타이를 맨다. 회사는 사람이 일하는 기계이다. 학교, 교도소 그리고 회사는 그 안의 사람들의 위치와 시간을 관리한다. 학생은 학교에서 훗날 회사에서 일할 연습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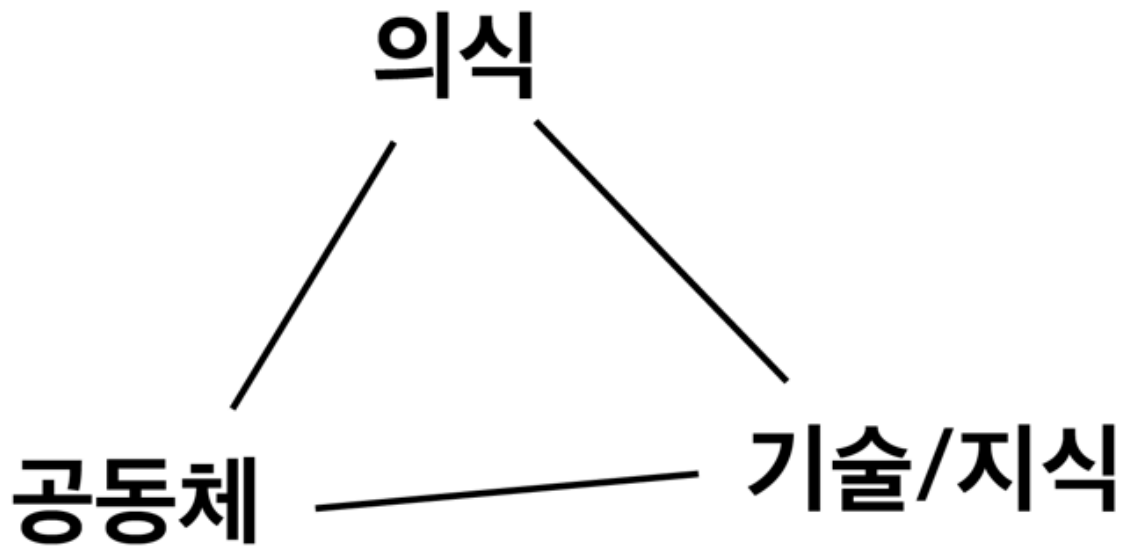
The programs of discipline and punishment, which Michel Foucault noted, continues in the space of education. Students and prisoners wear uniforms. People working in the Wall street

often wear ties in light blue. Company is a machine people work in. School, prison and company manages people's place and time. Students are trained to work in the company in the future.

파울로 프레이리는 '억압된 자들을 위한 페다고지'에서 억압자와 피억압자로 나뉘어진 세계에서 해방을 위한 활동으로서 교육과 인식 행위를 제안한다. 그가 제안하는 해방적인 교육, 즉 교사와 학생의 구분이 없는 수평적 관계와 대화,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하지만 권력의 공간 - 프로그램이 내면화된 개인들은 억압자도 피억압자 중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공존하는 제 3의 객체이다. 학교, 교도소 그리고 회사는 제 3의 객체가 된 개인들의 생명 연장을 돕는다. 이런 생각은 상당히 편파된 시선이라고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그럼 비평의 폭을 좁혀 배움의 공간의 규율과 그곳에서 인정되는 '정상'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자. 배움의 이러나는 공동체의 문화와 구조에 대한 생각에 집중해서 생각하면 감시와 처벌의 프로그램이 학문의 절대적인 힘과 절대적인 제도, 그리고 경쟁의 프로그램으로 변형했음을 볼수 있다.

Paulo Freire proposes teaching and learning as a praxis to liberate the oppressed from the oppressor (from the Pedagogy of the oppressed). The liberated learning he proposes, a horizontal structure without distinction between teacher and student, and the emphasis on conversations, are quite aligned with our agenda in general. However, the individuals who internalized the spatial program of the power can not be defined either as the oppressor or the oppressed, they are the third kind of entity coexisting in the space. School, prison and company extend the life of the third entities, its their life support. These kind of ideas can be criticized for being rather polarizing. Let's focus on the scope of criticism into the rules (codes of conduct) in the space of learning, and the normality that is acknowledged in it. Here, I'm concerned specifically with the culture and structure of the community where learning occurs, and how the program of discipline and punishment transforms to the program of sovereignty of knowledge, the absolutely powerful system and the never ending competition.

공동체 - 의식 - (기술/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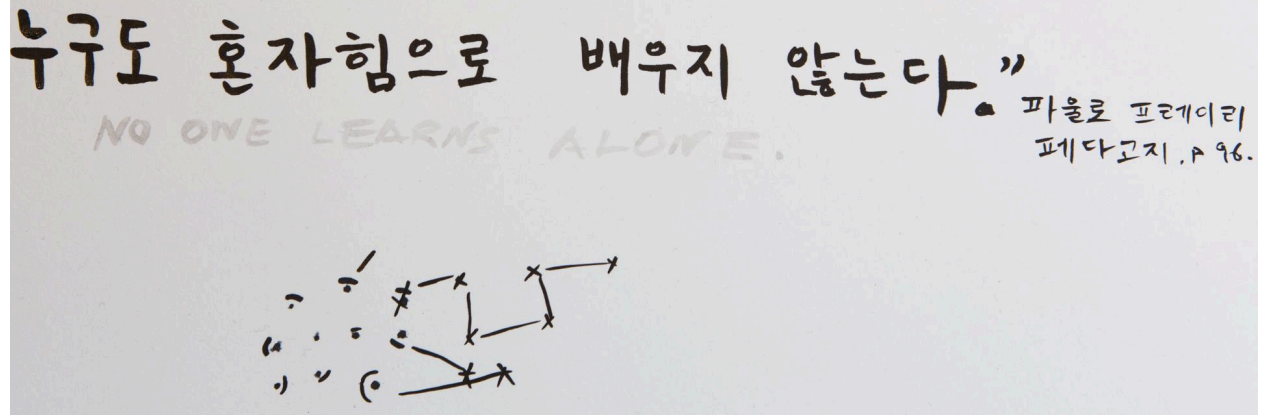


Community - Consciousness - (Techniques/ Knowledge)

이 세 가지 축을 통해서 배움의 지형도를 그려보자. 가장 긴밀한 공동체는 가족, 연인, 친구 등이 있다. 이 안에서는 일상적인 배움이 일어난다. 공동체에서 의식 쪽으로 가면 종교 공동체가 있고, 의식에 더욱 가깝게 가면 사회 참여가 있다. 종교를 기반으로 둔 공동체와 사회 참여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은 다르지만, 그 방식은 흡사하다. 그리고 의식의 축에는 행동주의 혹은 액티비즘이 있고,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있다. 모든 정치 활동이 교육적인 것은 아니다. 실제 정당 정치는 경제- 프로그램에 더욱 가깝지만, 배움의 맥락에서 정치란 학생회 참여, 시위, 학부모 활동 등이다. 의식에서 기술/지식의 중간에는 오픈 소스가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지식의 자유를 추구하고 경쟁보다는 협업을 시도하는 자유 문화의 맥락이다. 기술/지식은 학문적인 정보, 규칙을 따라 전달해야만 하는 지식 (예를 들면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학 지식) 그리고 말로 전달하거나 세대 간 전해지는 지혜 또한 있다. 이러한 기술/지식은 공동체나 의식이 없이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데, 아무도 읽지 않는 백과사전 같은 짐이 될 수도 있다. 즉, 공동체와 의식의 장치로 기술/지식이 활용될 때에서야 의미 있게 활용되고, 배움의 도구가 된다. 기술/지식과 공동체의 중간에는 학술지나 학회에서 참여하는 과학 커뮤니티가 있다. 대중문화의 영역에서는 (자동차, 카메라 등 장비의 사용에

대한) 기술 포럼이나, 지식을 나누는 콘텐츠 공유지 (위키피디아, 지식인 등) 그리고 각자의 취향을 중심으로 하는 동호회가 있다. 이러한 공동체 중 비뚤어진 의식을 기반을 둔 공동체는 무지에서 나오는 폭력적인 언어를 구사하며 사회에 해로운 활동을 하기도 한다. 특정인, 사회적 약자, 종교인 그리고 여성 등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증오 범죄는 의식 없는 배움, 즉 기술의 도구가 된 공동체의 결과이다. (구체적인 예로 [게이머 게이트의 사건](#))

Let's draw the map of learning with the three pillars of community, consciousness and techniques/ knowledge. In the most intimate of the community, there are family, lovers and friends. There, learning occurs in the everyday life. Religious communities are positioned between community and consciousness, and toward closer to the consciousness, there are socially engaged communities. Two communities have different objective but they are quite similar in the way it operates (or the other way around?). In the pillar of consciousness, there is actionism or activism, as well as direct participation in the politics. Not all political activities are educational. The actual party politics is closer to economic program, the politics in the context of learning is participating in student organization, protest and parents teacher association for example. In the middle of consciousness and techniques/ knowledge, there is open source. Not only in software, but also in the general movement of free culture where we celebrate freedom of knowledge and collaboration over competition. Techniques/ knowledge means academic information, and the kinds of knowledge that can only be transferred in rigid structure (such as medical knowledge where the patients life depends on it) as well as the folk knowledge that is passed on through the generation and verbally. These techniques/ knowledge do not amount to much unless it has some relation to consciousness and community. Without it, the techniques/ knowledge can be an unnecessarily large encyclopedia that no one reads and only takes up shelving space. In between the techniques/ knowledge and community, there are scientific communities that publish articles on peer review journals and participate in conferences. There are also commons for contents where people share knowledge (like wikipedia) and also hobbyist circles where individuals of shared interest and preference come together. Of the communities that share wrong consciousness can speak the language of violence (coming out of ignorance) and can do harm to the society. Especially, they target to the disadvantageous individuals and communities, religious groups, gender (especially female). Their hate crime is the outcome of learning without consciousness, thus a community for learning that has become a mere tool of techniques/knowledge. (Specific example includes [Gamergate controvers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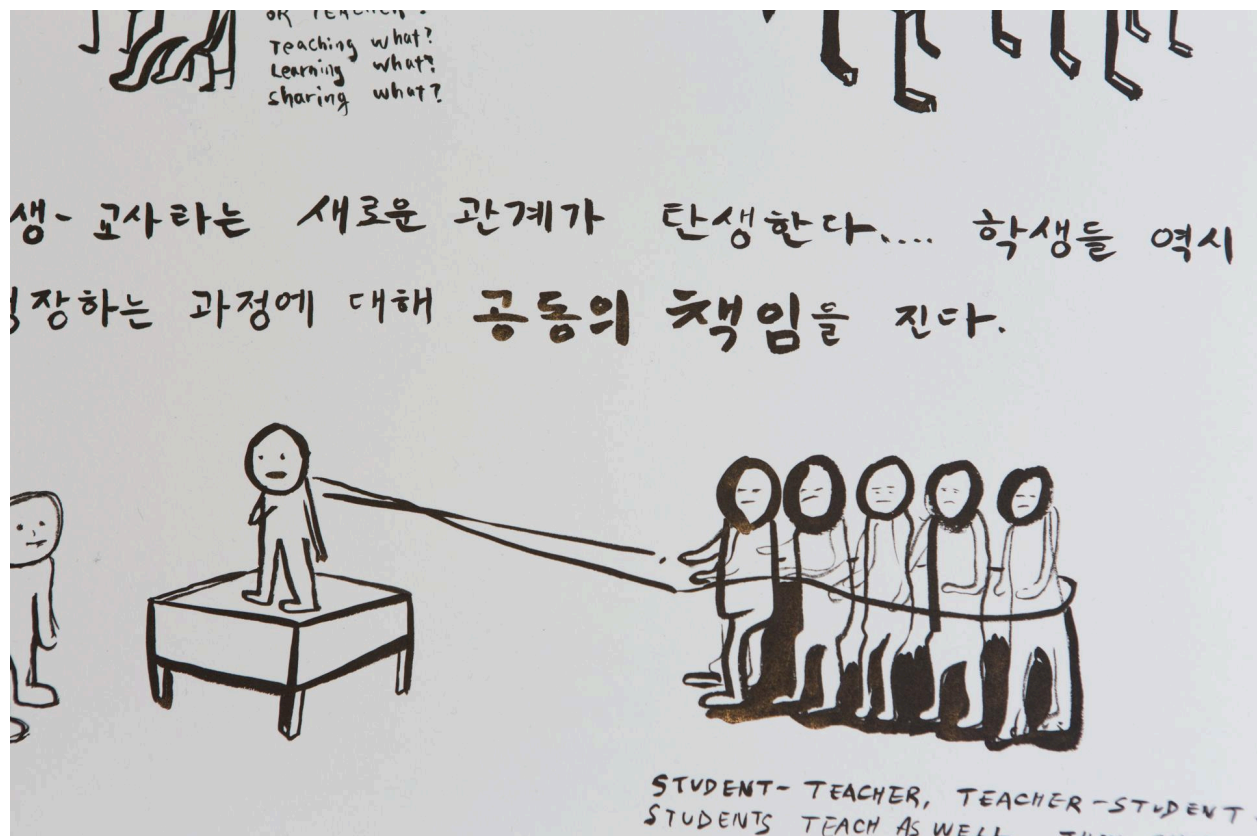
배움의 책임

나의 배움이 나 외의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가? 나 외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됐다. 정규 교육과정은 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와 가정의 책임이라고 하자. 그 후의 배움은 개인의 발전을 위한 것 이외에 누구에게 의미가 있고, 만약 사회적 의미가 있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인가? 이런 묘한 질문은 지난 10년간 급격히 대중화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했다. MOOC (Massive online open courses)의 대중화와 그 한계는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함이 더욱 깊은 배움은 아닌 것을 증명했다. [MIT Technology Review 기사](#)에서 알리듯이 이러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은 거대한 산업이고 전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기사는 MOOC가 이미 그 내용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한 보조 장치로서 훌륭하고, 한편 양질의 강의를 접할 기회가 적은 대다수의 사람을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긍정적인 파급 효과에 대한 언급은 어찌보면 당연할수도 있기에 더이상의 강조는 필요 없을것 같다. "한 평범한 개인이 조카의 공부를 돕기 위해 만든 UCC 강의가 웹2.0의 파도를 타고 인기 MOOC가 된다"라는 신화 뒤에는 기업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운영되는 콘텐츠 회사가 있고, (total view count 등의) 양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플랫폼 만들기에 집중한다. 그러면서 기술/지식은 있되 의식과 공동체는 축소되어 배움의 세가지 축에 균형의 문제가 생긴다.

What meaning does my learning have outside of myself? whose responsibility is it? The conventional learning (K through 12) is a shared opportunity to help individuals become a member of the society, thus the government and families share the responsibility of one's learning during that time. What does the learning after that point mean, other than individual improvement? If the learning has some kind of social meaning, is it just my sole responsibility? This is a rather odd question that came out of the recently popularized online education programs. MOOC (Massive online open courses) and its wide popularization proves a point that effective means of sharing information is not necessarily the most meaningful ways of learning. An [article on MIT Technology Review](#) articulates on the truly massive impact of such programs, in the industry as well as the classrooms around the world. The article highlights MOOC's benefit to the teachers who use them as a training opportunity for their own practice, and as a tool for the millions of people who can not easily access higher education personally. The benefits of MOOCs are not questionable and obvious, there are no reasons to stress its importance any more. Behind the myth of "a typical Joe tries to teach his nephew calculus and made video instruction (UCC) and with the tide of Web 2.0 it becomes the world famous MOOC", there are large corporations that operate to fulfill the needs of the company, and focus on developing platforms that can quantify its selling point (such as total view count). It leads to the imbalance in the pillar of learning, where techniques/ knowledge is weighted heavily and the consciousness and community is driven out of the consideration.

혁신적인 기술이 혁신적인 배움은 아니므로 기존 교육의 구조적인 결함을 반복, 증폭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기술의 지식과 분산은 자생적인 네트워크 생태계가 아닌 수익 창출을 위한 집중과 분산의 프로그램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현재 교육과 배움의 헤게모니를 그대로 반복함으로써 MIT, 하버드의 MOOC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은 지식/기술의 다양성이 아닌 전 지구적인 지식이 일률화 될 수도 있다. 하지만 MOOC이 가진 가장 큰 불편함은 그 내용에 대한 불신이 아니고, 배움, 놀이, 참여로 포장한 비즈니스 아젠다에 대한 불신도 아니다. 그보다 콘텐츠의 분산을 통해 배움의 책임을 분산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싶다. 고전적인 배움의 장소에는 사재 간의 관계, 공동체의 친밀함 안에서 전달되는 삶의 지혜 그리고 의식의 영역에서 공유하는 연대감은 기술/지식 콘텐츠처럼 쉽게 분산되지 못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 클라우드소싱한 배움의 공간에서 배우는 사람으로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참여에 대한 의미와 책임을 고민한다.

Innovation technology is not same as the innovative learning. It can often repeat the existing learning system, and amplify the faults. The technology in dispersion and concentration of knowledge is used to produce maximum profit other than to support the self sustaining ecology of learning. And by repeating the existing hegemony of learning, it can lead to universal normalization of learning across the world, other than individuation of techniques/ knowledge. (especially as the MOOCs gravitate toward giant brands of Ivy league universities, MIT and alike) The most concerning thing about MOOCs are not about its contents (which are great!) and not even about the business agenda that's packaged as learning, play and participation. (forget all the learning- game apps!) I'm mostly concerned with dispersion of responsibility as the MOOCs disperse the contents. In the classical space of learning, there are trust relations between teacher and student, intimate community where the wisdom of life is passed on. And the sense of togetherness, which constitutes the consciousness, can not be dispersed easily like the techniques/ knowledge. As a teacher, learner and observer of the crowdsourced environment of learning, I question about the meaning and responsibility of our participation.



대화의 시작

불확실한 학교는 대화의 시작이다. 대화에서 시작되었고, 대화가 이 학교의 목적이고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행사의 정확한 목적이나 진행 타임라인 등을 정하지는 않았다. 전반적인 가이드 라인은 일방적인 프리젠테이션을 줄이고 참가자가 서로 질문하고 일시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많은 참가자와 대화하기 위해서 3명의 진행자를 추가로 초대했다. 그래서 가옥의 김화용, 심재경 그리고 김승범씨가 합류해서 청개구리 제작소의 최빛나와 송수연, 그리고 나와 함께 6명이 진행했다.

진행자들의 소개 이후에 각자의 비법을 이야기 함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 한 참가자는 자신만의 언어를 만드는 비법이 있다고 했다. 즉 ‘답답함’도 아니고 ‘탁함’도 아닌 ‘탑탑함’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예로 들며 자신의 언어 재구성 능력을 뽐냈다. 다른 한 참가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처음 만나서 대화하는 방법에 비법이 있다고 했다. 그 후 4명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진행자들이 준비한 질문에 답하고, 대화하고 다시 자신들의 질문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한 시간 후 다 함께 모여서 질문을 공유하고, 대화를 이어갔다.

불확실한 학교 워크 시트

- 자신의 삶에서 최근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배움의 순간을 묘사해줄 수 있나요?
-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정말 즐겁게 / 효과적으로 / 인상을 남긴 가르침을 전달한 순간을 묘사해줄 수 있나요?
- 학교 외에 배움과 가르침이 있었던 공간 혹은 사건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학교에는 어떤 규율 (규칙)이 있나요? 어떠한 것이 정상으로 여겨질까요?
- 자신의 배움을 누구의 책임으로 생각하나요? (자신의 책임, 국가/회사/가족의 책임?) 이 질문을 뒤집어 말하면 자신이 배움으로써 자신 외에 누구에게 의미가 있나요?

Beginning of convers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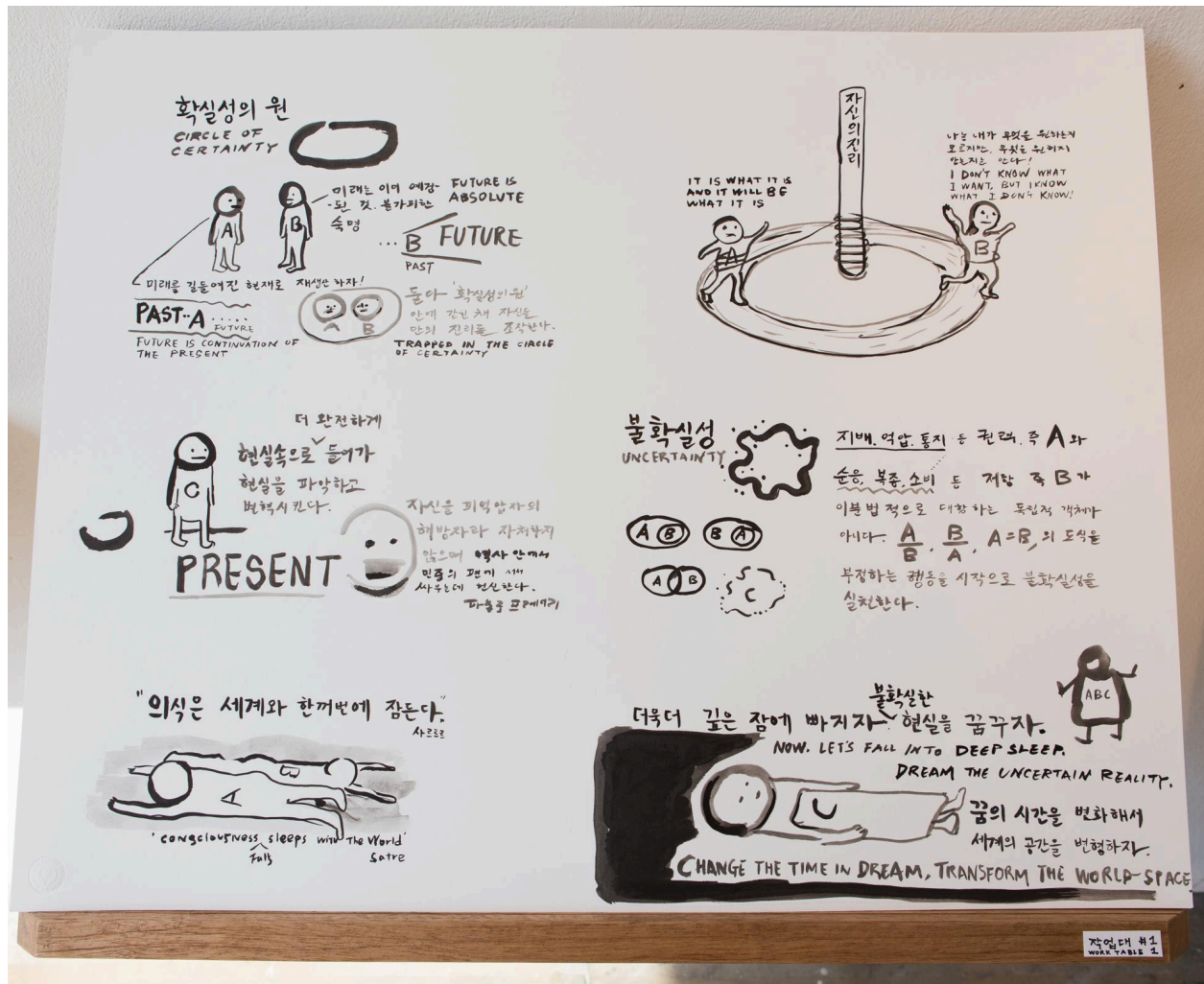
Uncertainty school is beginning of conversation. It began as a conversation and conversation is the end goal and outcome of the school. Therefore, the school was realized through uncertain preparation. The general guideline was set to minimize time for presentation and to have opportunities where the participants can speak to one another and build a temporal sense of community. In order to house more participants, we asked three more facilitators. Hwayong Kim

and Jaekyung Shim from Ga-ok, Seungbum Kim joined Fabcoop's Bittna Choi and Sooyoun Song and myself. There were 6 facilitators and about 24 participants.

Bittna and I presented some material we've prepared. Bittna talked about Lab 36, a community space inspired by squatting movement based in Mullaedong. Everyone had a moment to introduce themselves by telling their secret superpower. One participant said she has an ability to create new words and expressions. Another participant said she has a special way of talking to strangers easily. During the group session, four participants were paired with one facilitator. There was a worksheet of questions that were prepared. Participants had time to think about it on their own, discuss about their learning environment, the kind of school they wish to build and to come up with their own questions in the end. About one hour later, everyone met together and continued with the conversation.

Uncertainty school worksheet

- Can you describe the most memorable learning moment recently?
- Can you describe a moment when you taught someone joyfully, effective and impressively?
- If there are places where you learn and teach outside of school, what was the space and the event?
- In your ideal school, what are the kind of rules (codes of conduct)? what will be considered normal there?
- Whose responsibility is your learning? (Your own, the nation, company or family?) If we flip this question, what kind of meaning does your learning have outside of yourself?



불확실한 학교는 불확실하다. 때로는 진행이 매끄럽지 않고, 대화가 어렵기도 하다. 하지만 그 학교의 형태를 정의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확실하려고 한다. 나는 뉴욕에서 흡사한 포맷으로 5월 1일 May Day에 Free University of New York 맞춰서 행사를 준비하려고 한다. 청개구리 제작소 또한 서울에서 활동을 이어가리라고 생각한다. 불확실한 학교가 언제 또 열릴지,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 그저 여러 사람의 급진적인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학교 없는 사회와 모두가 각자의 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를 동시에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주저 없이 다음 행사를 준비하고자 한다.

Uncertainty school is uncertain. The event is not organized smoothly sometimes, and its difficult to have many people speaking at once. However, the school will not define itself as a rigid structure and will continue to be uncertain. I wish to host another Uncertainty school in similar

format around the May 1st in New York, May Day and Free University of New York. Fabcoop may continue to experiment with the idea in Seoul. It's uncertain if and when the Uncertainty school will happen again. I simply wish we can all get together to share radical imagination, to discuss about a society without schools, or a society where everyone runs their own schools. If such opportunity arises, I will not hesitate to organize another session.

Uncertainty school 1



Youth participants age between 17~19 applied to participate. We didn't reach out to specific schools or organizations. They found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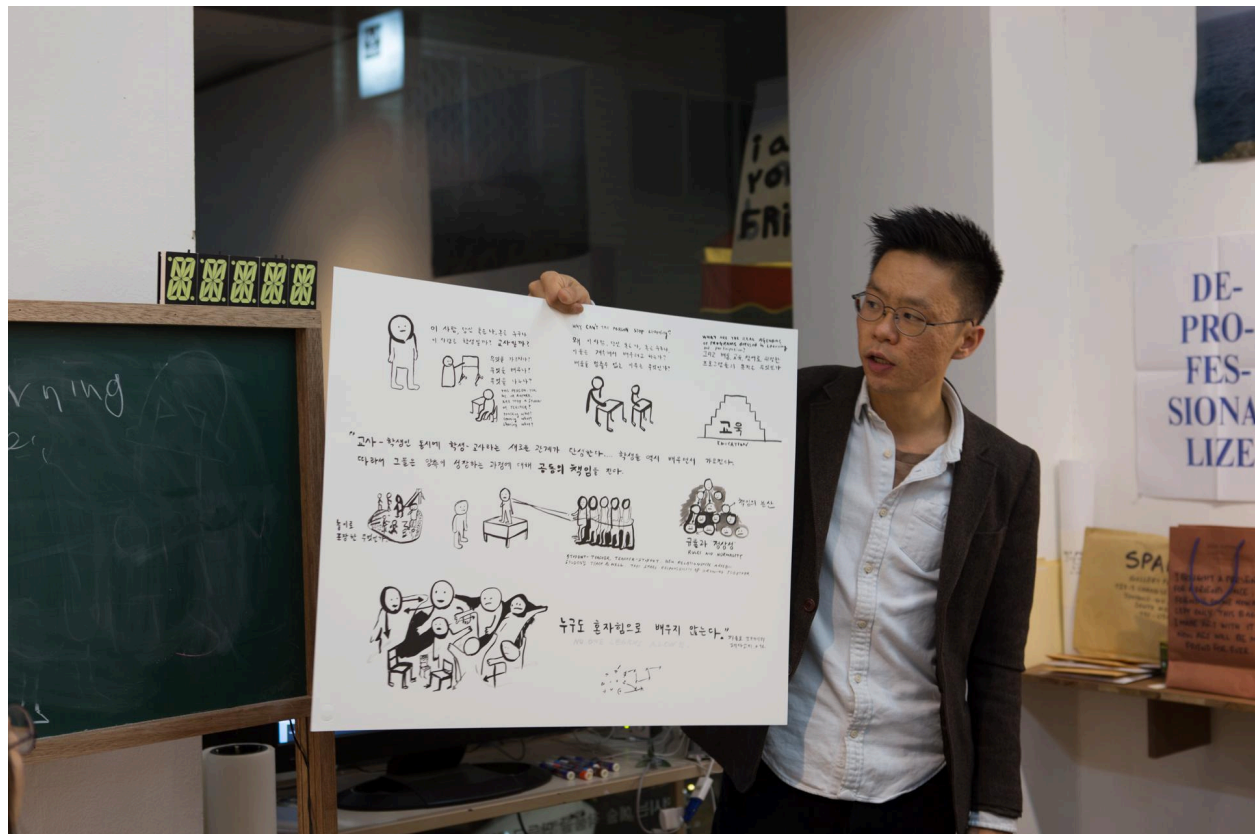
프로젝트 위기를 기획한 친구 <http://projectwigi.wix.com/official>



Uncertainty school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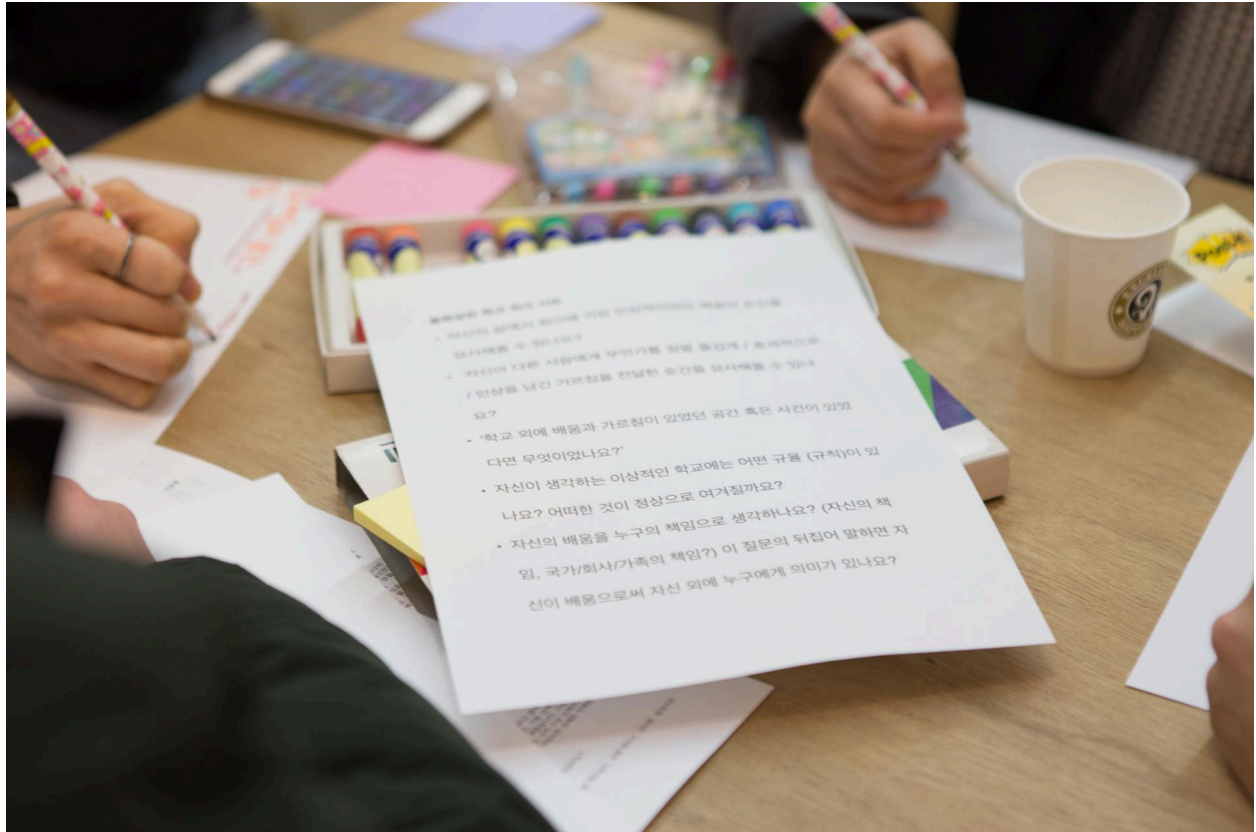
Fabcoop 청개구리 제작소



최태윤 Taeyoon Ch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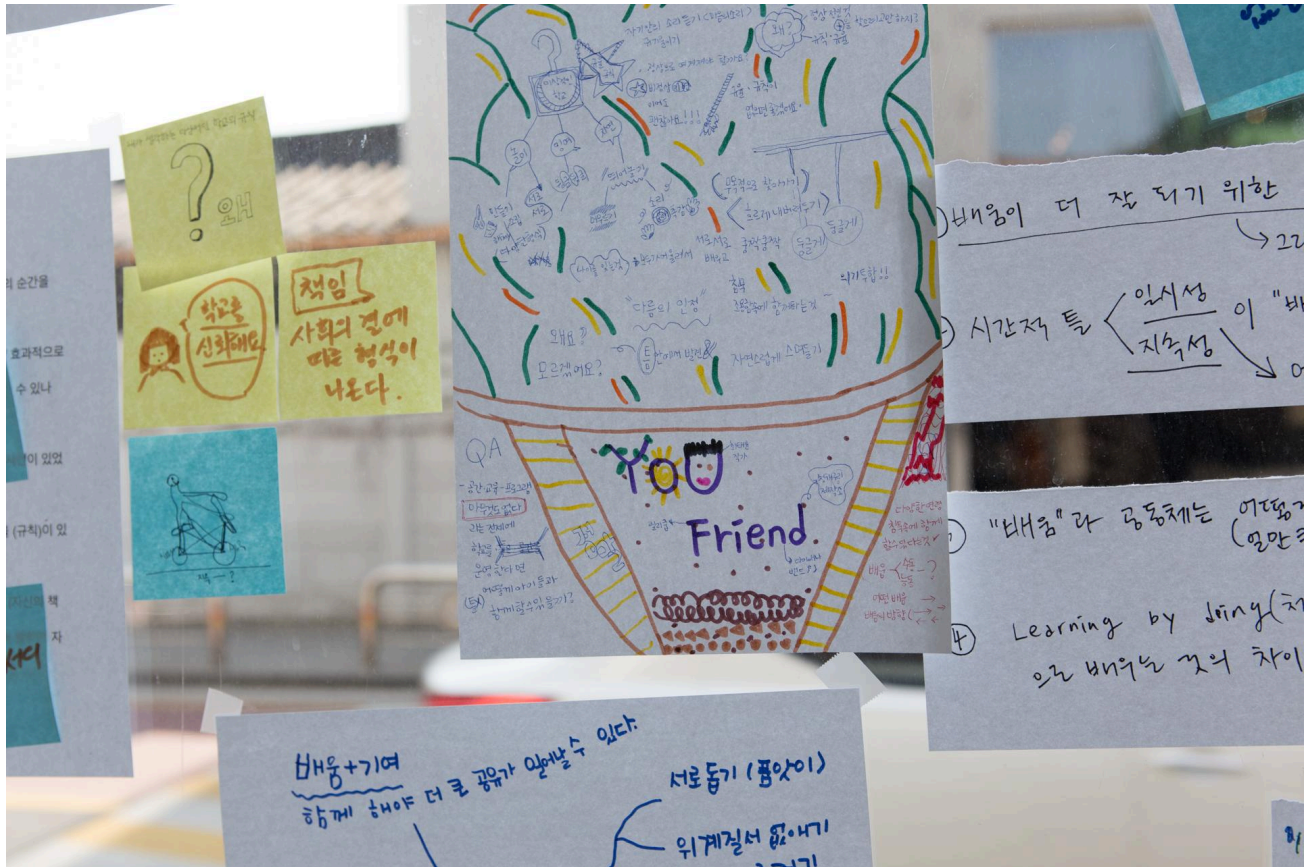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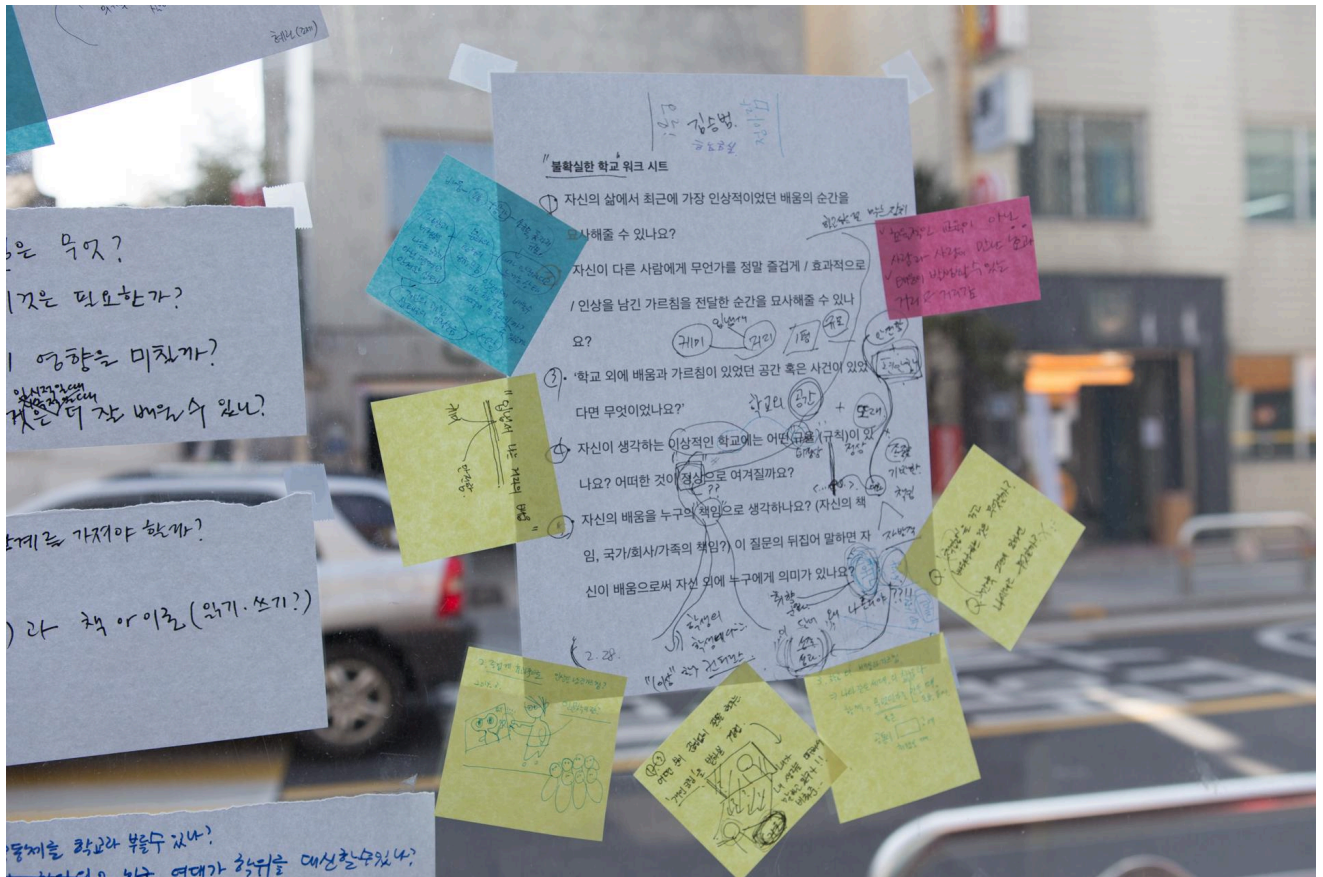












배움의 순간



- ① 무슨 순간? 혹은? 배움의 순간이 언제?
- ② 배움의 순간? 배움의 순간이 언제?

③ Mea culpa.

모든 배움은 결국 내 책임.
It boils down to what you do with your learning.
It depends on.

+ 모든 배움의 순간

배움의 순간

배움의 순간

배움의 순간

배움의 순간

배움의 순간

배움의 순간은 배움의 순간이다.

배움의 순간은 배움의 순간이다.

배움의 순간은 배움의 순간이다.

배움의 순간은 배움의 순간이다.

배움의 순간은 배움의 순간이다.

배움의 순간은 배움의 순간이다.

배움의 순간은 배움의 순간이다.

배움의 순간은 배움의 순간이다.

배움의 순간은 배움의 순간이다.

배움의 순간은 배움의 순간이다.

243

글씨적 네트워킹
 순간의
 불확실한
 공통체
 사기 연결지능
 사의 반복

툇깃이나 굶흔이
 주래는
 한지로
 제이 할까?

불확실한
환경은
간헐적 내전처럼
존재하는가?
미래는
불확실한데

불합심한
학교에서
본거리는
거떨거
서문과할경

